국화꽃 세상으로 초대

임실N치즈축제장 일원 가득 메운 꽃 만개 예고… 새 볼거리 제공

지난 해 임실N치즈축제의 4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낸 국화꽃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을 가득 메웠다.

지난 해 임실N치즈축제의 4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낸 국화꽃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을 가득 메웠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릴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3만여개의 화분에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이 알록달록 꽃망울을 터트릴 태세다.

전국노래자랑-임실군편이 열릴 3일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6일이면,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활짝 필 것으로 보인다.

올 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국화꽃이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의 국화꽃 아이템은 민선 6기 취임한 심민 군수의 기획에서 비롯됐다.

2015년에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로 벌써 네 번째다. 여기에 군은 올해 대형조형물과 부케형 포토존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도 전략적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끼고 있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너무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 이 많은 국화꽃을 키우느라 밤낮으로 고생하며 땀흘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치즈역사의 자존심이자, 임실군민의 자부심인 만큼 인구 3만의 작은 농촌 지역인 임실을 전국 곳곳에 알리고, 세계 속의 치즈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문화관광 명소 탄생 예감

순창, 창림 문화누리마을 17억원 투입 내년 완공

순창의 옛 모습 보전을 위해 시행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7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이뤄진 양방향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된다. 사업시행 당시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진행 방향부터 타 지자체 우수지역 견학 등 민관협치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

군은 창림마을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 가옥을 추억의 막걸리 집, 소소한 방앗간, 추억의 사진관 등으로 리모델링해 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쇠퇴해 가는 골목내 상권 또한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옥천골미술관의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전'의 기획전시, 일품공연 소공연장에서 매월 격주로 열리는 동호회 공연 등 순창은 현재 문화향유도시로도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사업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은 내년까지 사업부지내 가옥들을 추가로 매입해 마을 공유놀이터와 게스트하우스를 조성, 창림 문화누리마을 완성하다는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내년까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을 완료해 주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순창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예초기 사용전 장비 점검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추수철을 맞아 예초기작업과 가을걷이로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농업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전 정비점검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농업의 재해 율은 1.25%로 전제산업의 두 배에 이르며, 특히 요즘 농사유형이 도시와는 다르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농기계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기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하고 야간운전을 되도록 자재해야하며, 안전 보호 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특히, 좁은 농로나 비탈길에서는 감속 운행으로 전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야광 반사판 및 경광들을 부착하고 갓길로 안전운행 해야 하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신속히 119로 신고해 인명구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시장 터미널 휴게실 증축

순창군이 올 4월부터 추진한 순창시장 내 버스터미널 앞 비가림 설치 및 휴게실 증축이 완료되어 이용자 편익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올해 주민들과 관광객이 순창시장 버스터미널 휴게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800만원을 투입해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 버스터미널 앞 대기장소에 비가림 시설(17m×4.6~6m)을 설치하고 협소한 휴게실을 증축(7m×6.5m)했다. 휴게실 내 안마의자와 발열의자, 냉난방기,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특히, 새롭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과 안마의자, 발열의자는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추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을 찾은 한 주민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눈이나 비가 올 때 더욱 편리해졌다"면서 "또한 휴게실도 넓어져, 버스 기다릴 때 대기시간에 안마의자를 이용해도 되고 다른 편의시설도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의 핵심은 주민 등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있다"면서 "상인과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이환주 시장 "관심 · 배려 통해 가능"… 행정 주민 윈-윈 소통 강조

남원시가 1일 10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원시가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기 전에 그럴 수 있는 환경, 아이와 산모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섰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1일 10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에서 "서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워라밸 남원시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의 성패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단순히 주민과의 환담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의 협조와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해 행정과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 행정전반을 파악해 시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왜곡된 정보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한정된 예산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사업별 완급조절과 경중을 가려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한 억제해야 하나, 신규시책들은 의지를 갖고 꼭 실행에 옮겨 필요한 것은 만들어주고 어려움은 해결하는 생활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자"며, 내실있는 시정설계를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친절의 습관화는 대민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분리배출의 습관화는 더 청결한 남원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2018년 전국 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장재춘씨를 비롯한 10명의 수상자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시민과 공무원 11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 오수의견공원 등 6곳 완료

임실군은 군민들이 즐겨찾는 관광지, 공원, 등산로 입구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공원, 관촌 사선대, 국사봉, 나래봉, 회문산 총 6곳에 설치했다.

설치된 분사기는 손잡이를 잡고 누르면 기피제가 분사되는 방식으로 얼굴을 제외한 옷이나 신발 등에 2~3회 정도 분사 시 4시간 동안 해충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이 있으며, 특별한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무원증 패용 행정서비스 실천

순창군이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 직원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공무원증 패용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해도 담당부서 직원을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 조치로 이뤄졌다.

간부공무원이 먼저 공무원증 패용을 솔선하면서 직원들도 일제히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군 이종현 서무계장은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 사항없이 민원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